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다음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자네가 진정한 인이 무엇인지 나에게 물었기에 이 편지를 쓰네. 사욕(私慾)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克己復禮)이 곧 인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네. 하루만이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모두 인으로 귀결될 것이니, 인을 실현하는 것이 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게나. 이것은 내가 평소 강조했던 어진(仁)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지. ... (후략).

- ① 모든 도덕 규범에서 벗어나 정신적 자유를 최대한 누린다.
- ②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하고 일체 시비(是非)를 분별하지 않는다.
- ③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종교적 가르침을 실천한다.
- ④ 도덕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경전 학습에만 집중한다.
- ⑤ 자신의 행동에 부족함이 없는지 성찰하며 끊임없이 수양한다.

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자신에 의해 쟁취되어야 한다. 노동하는 인간이 생산 수단을 독점한 자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것은 정치적 종속의 주된 원인이다.
 을 : 유토피아 섬에서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쓸데없는 일을 강요하는 일은 전혀 없다. 국가 체제를 구성한 주요 목적은 정신적 자유와 교양의 함양에 전념하도록 하는 데 있다.

- ① 갑 : 개인이 노동 분업에 예속된 상태는 노예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
- ② 갑 :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 ③ 을 : 이상 사회의 사람들은 잉여 생산에 대한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
- ④ 을 : 필요 이상의 노동은 사람들의 정신적 자유를 침해하는 원인이 된다.
- ⑤ 갑, 을 : 이상 사회 구성원들은 사유 재산 없이도 풍요롭게 살아간다.

3.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업(業)은 형성된 것이고 의도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느낌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연기(緣起)를 잊지 말고 지혜롭게 잘 살펴야 한다.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苦聖諦)를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 채 항상 잠들어 있는 것과 같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 닦음의 성스러운 진리(道聖諦)를 깨우쳐야 한다.

- ① 집착과 사사로운 욕심은 불성을 직관하는 데 있어 장애물로 기능한다.
- ② 무명(無明)을 제거하지 못한 인간은 고통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③ 인간은 오직 도(道)에 대한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만 해탈할 수 있다.
- ④ 생각, 말, 행동으로 짓는 악업(惡業)은 윤회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 ⑤ 팔정도(八正道)를 수행할 때 중도(中道)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갑,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들이고, 병은 고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두 가지 쾌락을 경험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을 : 공리의 원리에서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 즉 쾌락 그 자체이다. 쾌락의 양은 우리의 행위가 도덕적인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병 : 덕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어 있고, 즐거운 삶은 덕에서 분리할 수 없다. 사려 깊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살지 않고서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① 갑 : 쾌락의 질적 차이는 쾌락의 가치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 ② 을 : 행복을 추구함과 동시에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③ 병 : 개인의 공동생활 빈도와 개인이 누리게 되는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다.
- ④ 갑, 을 : 행위를 일으킨 동기와 행위의 결과 모두 행위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⑤ 을, 병 : 쾌락은 선이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5.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이성 혼자서는 그 어떤 의지 작용의 동기가 될 수 없으며, 이성만 의지를 지도함에 있어서 감정에 대립할 수 없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고 또한 그해야만 한다.

우리가 이성에 의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단지 인식하는 것이다. 지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신의 본성인 필연성에서 따라 나오는 모든 활동을 정연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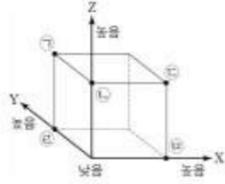
- ① 갑 : 이성주의적 윤리설은 의지 활동의 동기를 설명하지 못한다.
- ② 갑 : 공감 능력의 보편성은 사회적 시인의 감정의 근거가 된다.
- ③ 을 : 신, 즉 자연 인에는 우연적 요소와 자유 의지가 들어설 곳은 없다.
- ④ 을 : 인간은 신의 본성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실체이다.
- ⑤ 갑, 을 : 행위의 도덕성은 개인의 주관적 선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갑, 을은 사회 사상가들이다.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 민주주의는 시민이 실제로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자신들을 통치할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을 :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공적 심의에 달려 있다. 공적 심의의 장에서 시민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근거들을 토론하며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수정한다.



- X: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소통을 강조하는 정도
- Y: 민주주의의 본질이 통치에 가장 적합한 엘리트의 선출임을 강조하는 정도
- Z: 민주주의를 대중의 승인을 얻기 위한 지도자들의 제도적 장치로 보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7.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 모든 사물의 이치는 내 마음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배우고 묻고 사색하고 변별하고 돈독히 행하는 공부는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자극한 데까지 확충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나) : 이치는 비록 모든 사물에 흠어져 있지만 미묘한 그 작용(用)은 실로 한 사람의 마음 바깥에 있지 않다. 마음(心)의 허령(虛靈)한 본체는 천하의 이치(理)를 모두 아우를 수 있다.

—<보기>—

㉠. (가) : 타고난 앎을 개별 사물에서 실현하는 것이 격물(格物)이다.
 ㉡. (가) : 마음의 본체를 드러내기 위해 사물에 대한 지식을 쌓아야 한다.
 ㉢. (나) : 마음에 부여된 하늘의 이치인 성은 하나로 확정되지 않는다.
 ㉣. (가), (나) : 새롭게 학습하게 되는 이치는 사실 마음이 알고 있음에도 미처 자각하지 못한 것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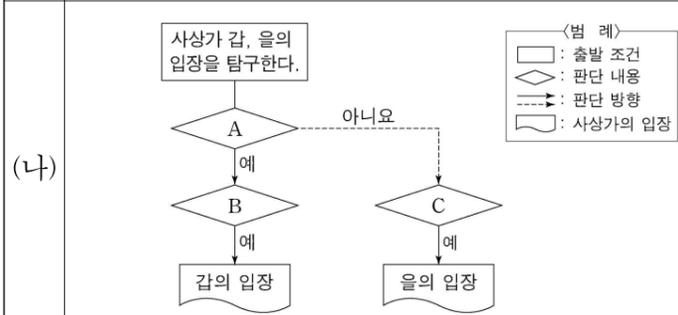
8. 고대 동양 사상가 갑, 한국 유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까닭에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면 다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선왕(先王)은 그 어지러움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의를 제정하였다.
 을 :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욕망을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하늘은 사람에게 덕을 좋아하는 감정(情)과 선을 가려 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었다.

- ① 갑 : 도덕과 예의는 선천적 특성이 아닌 후천적 교육의 산물이다.
 ② 갑 : 인위적 규범의 내면화는 인간의 본성을 확충한 결과가 아니다.
 ③ 을 : 사단과 기호(嗜好)는 사덕과 달리 인간이 본래 타고나는 것들이다.
 ④ 을 : 인간은 선악을 좋아함과 동시에 선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다.
 ⑤ 갑, 을 : 누구나 사단을 실천함으로써 이상적 인간에 가까워질 수 있다.

9.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사회의 두드러진 결함은 완전 고용을 실현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는 조세 정책과 이자율 조정 등의 수단을 통해 완전 고용 상태를 달성해야 한다.
 을 : 개개인의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은 목적을 이루게 된다. 자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수고를 짊어지는 것과 같다.



—<보기>—

㉠. A : 정부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활용의 효율성 증진을 기대해볼 수 있는가?
 ㉡. B :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가?
 ㉢. B : 시장 경제의 원리를 존중하는 것과 투자의 일부분을 민간인이 아닌 정부가 전담하는 것은 양립 가능한가?
 ㉣. C : 개개인의 이기적인 이익 추구 성향은 사회 전체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는가?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10.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 우리의 도(道)는 한울님의 뜻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상을 교화한다(無爲而化). 우리의 도는 넓고도 간략하여 많은 말과 풀이가 없어도 된다.
 을 : 우리의 도(道)를 밝혀서 백성을 교화하고 인애(仁愛)와 윤리의 정신을 넓혀 가면 서양 문물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우리의 것이 융성하게 되면 저들의 것은 사라질 것이다.

- ① 갑 : 사해 평등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
 ② 갑 : 남녀와 신분의 차별이 사라진 조화로운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
 ③ 을 : 유교적 가치 체계에서 벗어난 문물들은 배격의 대상이 된다.
 ④ 을 : 서양의 종교와 가치관은 나라를 지키는 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⑤ 갑, 을 : 후천(後天)의 이상 세계를 위해 기존의 도덕 규범을 따라야 한다.

11. (가)의 갑, 을은 중세 서양 사상가들이고, 병은 현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 진정한 철학자는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신에 대한 사랑이 천상의 나라를 이루며, 영원한 행복은 천상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p> <p>을 : 철학적 학문은 인간 이성으로 탐구되며 신학은 신의 계시에 따라 이루어진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명한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결과를 통해 논증될 수 있다.</p> <p>병 : 한 개별적인 인간이 되고자 한다는 것은 신 앞에서 오직 혼자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막대한 노력과 막대한 책임성 앞에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되는 것이다.</p>
(나)	

- ① A : 이성은 결코 신앙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② B : 진정한 행복은 신의 구원 없이는 완성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③ C, E : 이성을 활용하지 않고도 신과의 합일이 가능함을 간과한다.
- ④ D : 인간은 절망을 겪을 때 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됨을 간과한다.
- ⑤ F : 신을 따르는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양립 불가능함을 간과한다.

12.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가)	<p>갑 :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理)와 기(氣)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각의 유래와 관련하여 말한다면 어떤 것은 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기라고 하는 것이 어찌 불가능하겠는가?</p> <p>을 :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는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 전체를 아우른다는 측면에서는 사단은 칠정만 못하며, 순수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칠정은 사단만 못하다.</p>
-----	---

- ① 갑 : 사단은 칠정에 포함되지 않는 그 자체로 순수한 본성이다.
- ② 갑 : 측은해하거나 기뻐하는 감정 모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 ③ 을 : 본연지성은 기질에 따라 선악의 정도가 끊임없이 변화한다.
- ④ 을 : 도덕적 불완전함의 원인은 거의 기변적인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 ⑤ 갑, 을 : 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일종의 도덕적 기호(嗜好)이다.

13. 갑,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 덕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고 유익하다면 그것은 지식이야만 한다.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지식이 더해지느냐 무지가 더해지느냐에 따라 유익함과 유해함이 결정되기 때문이다.</p> <p>을 : 행복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요, 여러 선들 중에서 최고의 선이다. 행복이 덕에 따르는 활동이라면, 인간은 이성적 관조를 통해 그것을 누릴 수 있다.</p>
-----	--

- ① 지식과 덕을 갖춘 사람들 중 일부는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가?
- ② 개인의 이성적 숙고는 참된 앎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가?
- ③ 옳음을 행하려면 무지의 자각을 통해 유덕한 성품을 길러야 하는가?
- ④ 유덕한 사람들의 행동을 본받음으로써 덕행을 실천할 수 있는가?
- ⑤ 이성은 배우고 헤아리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기여하는가?

14.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p>갑 : 우리의 다리가 짧다고 하여 길게 늘어 주어도 괴로움이 따르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하여 짧게 잘라 주어도 아픔이 따른다. 본래의 무위(無爲)를 해치지 않는다면 괴로움이 들어설 곳이 없다.</p> <p>을 : 도(道)에는 실정(實情)이 있고 진실함이 있으나 행함도 없고 형체도 없다. 그것은 전할 수는 있으나 받을 수는 없고, 얻을 수는 있으나 볼 수는 없다.</p>
-----	--

- ① 갑 : 인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② 갑 : 세속을 초월하여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 ③ 을 : 인간은 지식보다는 무지(無知)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④ 을 : 사비(是非)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현자(賢者)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 ⑤ 갑, 을 : 우주 자연의 근원인 도를 중심으로 세상의 운영을 이해해야 한다.

15.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가)	<p>갑 : 자유는 한 사람이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설명된다. 사람이나 사회의 간섭으로 인해 노예가 되었다는 서술이 가능하다.</p> <p>을 : 자유의 조건은 노예와는 달리 타인의 자의적 권력에 종속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타인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사람의 지위로 설명된다.</p>
(나)	<p><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 <보기>
- ㄱ. A : '~로부터의 자유'는 자유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적합하다.
 - ㄴ. B : 애국은 정의로운 공동체와 시민을 향한 열정으로 표현된다.
 - ㄷ. C : 자신이 속한 나라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은 진정한 애국이 아니다.
 - ㄹ. C : 부당한 간섭이 없는 상태만으로는 자유로운지를 판단할 수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 무릇 도(道)에 들어가는 문(門)은 많지만 요체를 말하자면 돈오(頓悟)와 점수(漸修) 두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고요한 가운데 항상 지혜가 빛을 발하고, 지혜가 빛을 발하는 가운데 항상 고요하지 않음이 없다.
 을 : 교(敎)를 배우는 사람은 안을 버리고 바깥을 구하려 하고, 선(禪)을 익히는 사람은 연(緣)을 잊어 안으로 밝히기를 좋아한다. 모두 한 방향으로 치우친 집착이니 이변에 막혀 있다.

<보 기>

ㄱ. 갑 : 본체(體)인 지혜(智慧)와 작용(用)인 선정(禪定)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ㄴ. 갑 : 깨달음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교리 공부를 통해 불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ㄷ. 을 : 내면을 닦는 지관 수행과 경전을 읽는 교학 수행을 함께해야 한다.
 ㄹ. 갑, 을 : 깨달음을 얻으려면 자기 종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실상을 통찰하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ㄹ

17. 다음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는 한 타인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은 의무이다. 그러나 타고난 동정심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의 행위는 의무에 일치하고 매우 사랑방을 만한 것이지만 아무런 참된 도덕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행위에는 경향성에서가 아니라 의무로부터 행하는 도덕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①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들 중 일부는 도덕적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
- ②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 ③ 도덕 법칙은 무조건적이지만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 ④ 도덕은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다.
- ⑤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는 행복 추구를 거부한다.

1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진정한 평화란 직접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를 말한다. 폭력들은 몸과 마음에 다양한 양상으로 작용하지만, 반드시 의도된 것은 아니다.
 을 : 세상에서 높은 덕을 쌓은 선비는 반드시 친구의 몸을 자기 몸처럼 여기고, 그 친구의 부모를 자기의 부모로 여긴다. 차별적으로 대하는 사람(交際子)은 천하에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 ① 갑 : 사회 구조와 제도에도 암묵적으로 폭력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 ② 갑 : 개인 간의 소극적 평화는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 차원으로 확대된다.
- ③ 을 : 친소를 분별하지 않는 사랑과 우정은 심각한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
- ④ 을 :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기 위한 자국의 침략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다.
- ⑤ 갑, 을 : 모든 전쟁의 일시적인 종료를 통해 평화 실현의 조건이 완비된다.

19. 다음은 근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연 상태는 비참한 전쟁 상황과 같습니다. 각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보존은 국가를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사회의 선이 요구하는 비에 따라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수중에 양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를 수행하는 이유는 결국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 ① 갑 :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공동체이다.
- ② 갑 : 국가 권력의 강제력은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억제하기에 효과적이다.
- ③ 을 : 국가 권력은 분할될 수는 없지만 공공선의 증진에 기여한다.
- ④ 을 : 국가 구성원들은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인다.
- ⑤ 갑, 을 : 국가의 기원은 자발적으로 동의한 계약에서 찾을 수 있다.

20.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덕적 선과 목적은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할 때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은 현존하는 상황에 결함과 악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교정되어야 하는 것을 토대로 상황의 선을 발견하고 계획하고 획득해야 합니다. 도덕은 행위의 일람표도 아니고 약국의 처방전이나 요리책의 요리법처럼 적용해야 할 일련의 규칙도 아닙니다. 도덕은 그 자체가 목표이기때문에 다른 필수적인 만족을 위한 예비 수단일 뿐입니다.



- ① 도덕적 지식은 가설의 일종이므로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
- ② 변화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 ③ 지성이 아니라 경험적 탐구를 통해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④ 모든 문제 상황에서 통용되는 해결책은 존재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 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을 도덕적 인간으로 간주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